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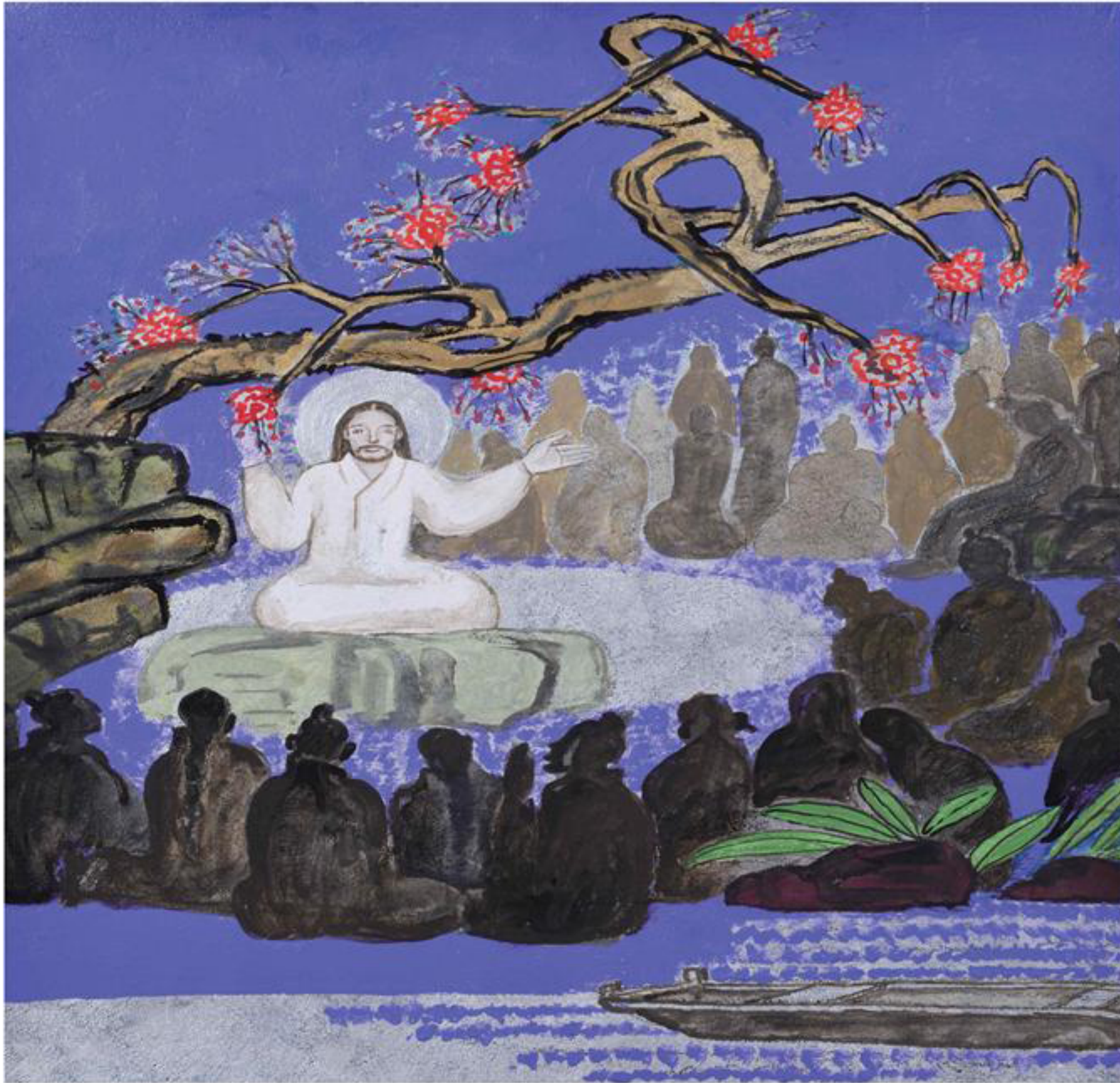
#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7월 18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16주일 (7월 18일)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마르 6,30-34)



##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로 바쁜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을 읽으십니다. 또한 많은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아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은 가엾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던져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3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얼마나 자주 홀로 성당에서, 감실 앞에서 머물러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마르 6,34)

모자라고 부족한 이웃을 인간적 사고로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쉬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남들은 일하는데 쉬어서 되겠는가.' 쉽게 이런 생각에 젖습니다. 그러니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도 모른 채 삽니다. 열정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하면 탈이 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상시 여유를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여유는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진정한 여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설정도 못한 채 바쁘게만 살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어쩌면 은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멈추고 돌아보는 기회와 계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느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사는 것에 매달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